

56 | 작물생산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관상동맥질환

성별	여	나이	73세	직종	작물생산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문○○는 약 8년간 원예연구소에서 근무하였으며 2008년 5월 21일 작업 중 쓰러져서 기관지 천식으로 산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이후 정밀검사에서 중증의 관상동맥질환으로 확인되었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원예연구소는 채소, 과수, 화훼작물의 육종과 재배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근로자 문○○는 약 8년 동안 일용직으로서 비닐하우스 내에서 채소류 작물의 정식작업, 벚짚을 이용한 멀칭작업, 잡초 제거, 과수 및 채소 수확, 비닐제거 하기, 약제 살포 보조 등의 농업관련 단순 노무를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9:00-18:00 이고, 점심은 12:00-13:00 이며 오전과 오후 각 30분간 휴식시간이 있었다. 일이 많을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작업을 하였으며 보통 9:00에 시작해서 16:30까지 마쳤다고 하였다. 재해가 발생한 2008년 5월 21일은 흐린 날씨로 비닐하우스에서 작업하기에 나쁜 환경이었고 정식한 호박의 작물사이로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벚짚을 골고루 깔던 중 통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외부의 온도차가 심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평소 건강한 상태였고 입원, 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최근 3년 동안 기관지 천식, 심부전, 당뇨, 기타 중증의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없었다. 가족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5-6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치료 중 이었다. 2008년 5월 21일 오후 5시경 쓰러졌으며 당시 혈압이 220/120으로 매우 높았고 천명 및 호흡곤란 증상이 있어 천식으로 의심되어 치료했으나 상태호전이 없어 정밀검사결과 관상동맥질환을 진단 받았다.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합병증으로 울혈성 심부전이 발생해 호흡곤란, 청색증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당뇨병도 확인이 되어 현재 치료중이다. 최초신청 상병인 기관지 천식은 임상적 추정진단으로 2008 .5. 22에 시행한 폐활량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였다.

4 | 결 론

근로자 문○○는

- ① 농작업을 하던 중, 천명과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기관지 천식’으로 업무상질병 판단을 신청하였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관상동맥질환으로 진단받아 상병명을 변경하였는데,
- ② 관상동맥질환과 관련된 화학적 물리적 유해요인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 변화, 작업량의 증가가 없었고,
- ③ 발병이전에도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고혈압, 당뇨, 지질이상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으므로,

근로자 문○○의 관상동맥질환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